

## 훔친 차 대리운전 해 끌고 간 도둑



▲ CCTV에 찍힌 도난 차량과 대리운전기사. 사진=chinapress.com.my

교묘한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가려던 자동차 절도범이 체포됐다.

지난 3월 17일 중국 광저우에서 자동차 절도 사건이 벌어졌다. 복사한 카드키로 문을 띤 도둑은 차를 몰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CCTV를 확보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절도 현장과 400km 떨어진 광시좡족자치구 위린시에서 절도 차량을 발견, 용의자 검거에 성공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검거된 용의자는 평범한 대리기사에 불과했다. 대리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차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시켜 달라는 주문을 받고 움직였을 뿐 절도범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수사는 다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됐다.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에 따라 대리운행 의뢰인을 찾아 나선 경찰은 결국 절도 현장과 150km 거리의 광둥성 후이저우에서 진짜 용의자를 붙잡았다.

용의자 하 씨가 털어놓은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하 씨는 복사한 카드키로 차를 훔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운전이 서툴러 어떻게 차를 끌고 가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운전자라 장거리 운행에 자신이 없었다는 그가 생각한 방법은 바로 대리기사를 고용하는 것.

대리기사에게 돈을 주고 훔친 차를 위린시까지 옮긴 후, 자신은 전혀 다른 지역인 후이저우로 도망가 경찰의 추적까지 따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경찰은 하 씨를 구금하고 여죄가 없는지 수사 중이다.

## “딸에게 코끼리 더 잘 보여주려고”

위스콘신에 사는 한 남성이 딸에게 더 깊은 ‘감명’을 주기 위해 목숨을 건 행동을 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아몬드 불락스라는 이름의 남성은 어린 딸과 함께 지난 7일 위스콘신 밀워키에 있는 동물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당시 어린 딸은 야외 전시장에 있는 코끼리에 큰 관심을 보였고, 아버지는 딸에게 코끼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인상깊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울타리를 넘는 무모한 선택을 했다가 동물원 사육사들에게 발각됐고, 그 자리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동물원을 찾은 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고 싶어 코끼리 울타리를 넘었다.” 고 자백했다. 경찰은 그에게 무단침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 263달러를 부과했다.

동물원 측은 무모한 아버지의 행동이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사건의 모방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동



▲ 샌디에이고 동물원 코끼리 우리에 아이를 안고 들어간 남성. 사진=유튜브(Good Morning America) 캡처

물원에는 한 20대 남성이 두 살 딸에게 코끼리를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서식지 안으로 안고 들어갔다. 딸을 위협에 빠뜨린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코끼리가 큰 소리를 내며 다가오자 아이를 데리고 허겁지겁 도망쳐 나오다가 발을 헛디터 아이를 손에서 놓치기까지 했다. 그는 땅에 떨어진 아이를 다시 안고 코끼리가 울타리까지 다가오기 직전에 가까스로 우리 밖으로 나왔다.

이 남성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고,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귀가했다.

## 코로나 지침 위반 ‘스쿼트 300개’ 후 사망한 남성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저녁 6시부터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있는 필리핀의 한 도시 풍경. 사진=유튜브(Al Jazeera English)

야간 통행금지령 위반을 이유로 ‘스쿼트 300개’ 처벌을 받았던 20대 필리핀 남성이 하루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필리핀 카비테주 트라이아이스에 살던 다렌 마노그 페나레돈도(28)는 지난 1일 오후 6시 이후에 물을 사기 위해 외출했다. 이 남성이 거주하던 도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후 6시부터 새벽 5

시까지 엄격한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통행금지령을 어기고 외출한 남성을 적발한 뒤 현장에서 처벌이자 교육 차원에서 스쿼트(허벅지가 무릎과 수평이 될 때까지 앉았다 섰다 하는 동작) 300회를 명령했다.

그는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힘겹게 300회의 스쿼트를 마쳤고, 다음날 오전 6시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이후 이 남성은 하루종일 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발작을 일으켰고, 이내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일 밤 10시경 사망했다.

트라이아이스 당국은 경찰의 처벌에 대해 “스쿼트 300회는 고문에 해당한다.” 고 비난하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역시 1일 공식 연설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리와 관련해) 말썽을 일으키거나 폭력을 이용해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대해 사살을 허용한다.” 고 경고한 바 있다.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0030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